

李退溪의 思想과 行動(三)**

阿部吉雄*

• 目 次 •

- | | |
|-----------------------|-------------------------|
| I. 序 - 이퇴계 연구회 설립의 취지 | III. 著書 |
| II. 이퇴계의 생애와 사상 | IV. 日本 儒學의 발전과 李退溪 |
| 1. 略傳 | V. 佐藤直方派의 李退溪 尊信 |
| 2. 사람됨과 생활태도 | VI. 李退溪의 철학적 수양론과 日本 儒學 |
| 3. 詩文·書法 | |
| 4. 退溪學의 성격과 역사적 지위 | |

IV. 일본 儒學의 발전과 李退溪

1. 머리말

시대의 추진력이 되는 유교

일본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이 통일국가로서 평화가 계속되고 질서가 확보되었던 시대는 셋이 있었다. 하나는 上代의 律令국가의 시대이고, 다음에는 江戸시대이고, 세 번째는 明治시대였다. 또 일본이 일대혁신을 이룩해낸 시대가 둘이 있다. 하나는 大和의 改新이고 하나는 明治維新이다. 그런데 이들 시대에는 모두 유교가 지도사상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도 좋다. 律令국가시대는 유교문화의 咀嚼시대이고, 江戸시

* 전 東京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3호(1979) 게재논문

대는 昭和시대이고, 여기에 明治시대는 이것을 피로 하고 살로 하여 그 위에 서구문명을 輸血한 혈육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 통일국가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때, 혹은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한 때, 더 나아가 일대혁신을 이룬 때에는 儒敎가 그 추진력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古來문화는 儒敎, 佛敎를 커다란 요람으로 하여 키워져 왔다. 그리고 그 儒敎, 佛敎는 한자한문을 통하여 수용한 것이다. 그 한문의 典籍을 가져온 최초의 사람이 백제의 王仁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문자가 없는 곳에 문화는 없다. 일본은 王仁에 의해 처음으로 論語가 전하여졌으며, 이것에 의해 문자를 알고 나아가 도덕·교육·정치 등의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웠다. 일본역사의 上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한반도의 은혜를 입은 것이 컸었던 사실은 역사가들이 다같이 인정하는 바이고, 최근의 高松塚古墳의 발견 등에 의해서 한층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江戸시대에 새로운 유학이 발흥하였을 때 이것을 소화하는 데도 多大한 은혜를 입었다. 특히 李退溪의 저술이 그 소화를 돕는 소화제가 되고 영양소가 되었던 일은 사실이다. 일찍이 나는 『日本 朱子學과 朝鮮』(1965년, 東京大學出版會刊)이란 책을 저술하여 이것을 실증한 일이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 일을 중심으로 하여 약간의 사항을 補足하면서 서술하여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초기문예부흥과 조선의 유학

전쟁은 참으로 꺼려야만 할 것이고, 특히 임진란은 조선에 다대한 피해를 끼쳤던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문화발전에는 하나의 수혈적인 역할을 해냈다. 예를 들면 이 전쟁을 계기로 인쇄혁명이 행하여지고 또 도자기 제법의 도자기구가 혁명이 행하여졌다. 동시에 나는 사상혁명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그것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하여 적지 않은 宋·元·明의 儒書나 조선의 서

적이 배에 실려 왔기 때문이다. 일본에 新儒學의 서적이 전래한 것은 아마도 고려보다도 수십 년쯤 전이기는 하나 鎌倉·室町시대는 승려가 문화의 指導權을 잡았던 불교시대이어서 朱子의 책같은 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이 전쟁에 의해 가져오게 된 다수의 책을 읽음으로써 일본의 사상가가 자기의 사상을 혁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최초의 혁신을 해내어 유학을 중흥한 사람이 藤原惺窩였다.

藤原惺窩

그는 禪僧이었으나 1600년 즉 德川家康이 幕府를 열기 직전에 僧衣를 벗어던지고 儒服을 입어 처음으로 儒者로서 독립하였다. 그런데 그가 이 儒者로서 독립할 때의 원인으로 된 것은 그가 조선의 學人과 사귀어 조선의 도서를 읽었다는 것에 구해진다. 곧 그는 30세 때 조선의 사절단과 만나고 특히 書狀官인 許箴(岳麓)¹⁾이라는 사람과 마음으로부터의 교제를 맺었다. 이 許箴이 쓴 문장시가 지금 『惺窩文集』에 실려 있다.

다음에 그는 임란의 포로 姜沆(睡隱)과 친교를 맺고 그 격려를 받아 드디어 독립한 儒者로서 세상에 나섰던 것이다. 惺窩는 姜沆로부터 처음으로 朱子學을 배운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朱子의 『소학』을 읽어 자기의 名號를 정하고 있으나 姜沆과 사귀고서 자신을 두렵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의 스승은 주로 조선으로부터 가져오게 된 도서와 이 姜沆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姜沆이 그를 위해 쓴 문장도 지금 『惺窩文集』 속에 실려 있다. 앞의 許箴의 글이나 이 姜沆의 글은 아마도 한

1) 許箴(1548~1612)은 『藤原惺窩集』이래로 許箴之로 쓰여져 있다. 다만 『桑韓損箴集』에는 許箴이라고 쓰여지고 있다. 『朝鮮人名辭典』에는 字는 功彦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錢謙益의 『列朝詩集小傳』에도 箴之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箴之는 別號나 別字이었는데도 모른다. 또한 허성이 惺窩를 위해 쓴 柴立字說이라는 문장은 儒佛의 異同을 論한 長文의 것인데 井上哲次郎 『日本朱子學派の哲學』에는 잘못되어 이것을 惺窩 자신의 문장으로 보아 惺窩의 사상을 논하고 있다.

국에서는 없어져 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惺窩는 李退溪가 공을 들여 교정하고 발문을 붙여 간행한 朱子의 『延平答問』이라는 책을 가장 애독하고, 가장 사랑한 제자 林羅山이 막부에 벼슬하고자 江戸로 가려고 할 때 이 책을 천하만민을 위해 숙독 완미하도록 권하고 이것을 전수하였다.²⁾ 이 책은 그의 開悟의 書인 동시에 書誌學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중국에는 없어진 佚存書이다.

그가 독립한 儒者로서 세상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중세의 神佛本位의 세계관을 현세의 질서를 주로 하는 세계관으로 고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육이나 사상을 종교 교단으로부터 이탈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문예부흥의 선구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제까지의 일본의 유교는 일상의 윤리도덕의 가르침이어서 그것을 지탱하는 깊은 철학이 없었다. 宋의 新儒學은 우주인생을 일관하여 인간의 있어야 할 모습을 생각하는 철학·윤리학이므로 유교적인 철학·윤리학은 그에 의하여 처음으로 일본에 일으켜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新儒學을 부르짖어 유교문화의 터전을 열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문화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 사상 형성의 근원에는 조선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林羅山

다음에 林羅山에 대하여 말한다. 羅山은 京都의 浪人의 아들이고 五山の 하나인 建仁寺에서 학문하였는데, 藤原惺窩가 단호히 儒者로서 독립한 것에 공명하여 그것을 기연으로 해서 朱子學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2세 때 당당한 대 논문을 惺窩에게 보내어, 惺窩가 표면으로는 朱子學을 신봉하면서 그늘에서는 陸象山·王陽明의 학도 믿는다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을 비난하고 또 격렬하게 불교를 공격하였다. 그러

2) 林羅山이 근엄한 필법으로 書寫한 『延平答問』이 지금 內詳문고에 현존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林羅山이 江戸로 내려올 때 藤原惺窩가 전수한 그 때의 由緒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나 드디어 羅山은 惺窩의 문에 들어가 제자의 예를 맺도록 되고 있다.

또한 그가 입문할 때 그때까지 읽은 和漢朝鮮本 440여부의 書目을 만들고 있다. 그 서목을 검토하여 보면³⁾ 羅山은 宋·元·明의 유교의 주요저서나 해설서의 類를 많이 조선의 翻刻本으로 읽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불교나 陸象山·王陽明의 학을 배척한 명대의 『學菴通辨』 『異端辨正』 『困知錄』 『性理字義』 등은 모두 韓本으로 읽고 있는 증거를 들 수 있다. 이들 책은 그의 사상적 입장을 결정하는 기본서적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은 朱子學 일색의 나라로 불교나 陸象山·王陽明의 학을 배척한 나라이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이런 종류의 宋·明의 儒書만을 출판하고, 또 조선의 儒者 자신도 이단 배척의 주장을 하였다. 羅山은 惺窩의 문인이 되기 전에 이러한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있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격렬하게 불교를 배격하고 陸象山·王陽明의 학을 비방하고 藤原惺窩의 陸象山·王陽明의 학을 포옹하는 학풍과 대결하여 朱子學 一尊주의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羅山은 五산에 전하는 유불 일치의 학을 전하였으나 그 전통만으로는 그의 이단 배척의 주장이나 朱子學 일존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보통 羅山은 惺窩로부터 朱子學의 전수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고 있으나 惺窩의 문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사상적 입장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조선전래의 도서를 많이 읽은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惺窩와 羅山の 학풍의 중요한 相違點은, 陸象山·王陽明의 학풍에 대하여 포옹적이었냐 배격적이었냐 라는 점에 있다. 그런데 羅山은 惺窩와 대결하여 다른 학풍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조선의 유학과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羅山은 중국·조선의 근세의 유교문화를 재빨리 수용하고 소개하여

3) 林羅山既見書目은 그 연보 가운데 실려 있는데 이것을 내각문고 현존의 羅山 舊藏書와, 여기에다 魚叔權의 『攷事撮要』에 附載된 冊板目錄과, 이 셋을 비교 검토하여 추정한 것이다. 상세한 것은 졸저 『日本朱子學と朝鮮』 173면 이하 참조.

江戸시대의 문예부흥·유교 문화형성의 기초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막부의 樞要의 지위에 있어 그 때까지의 불교문화를 유교문화로 전환시킨 중심인물이다. 그는 朱子學 일존주의를 제창한 사람이나 폭이 좁은 朱子學자는 아니다. 일본의 歷史學·神道學·國文學·本草學 등 일본의 지식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수많은 개척적인 일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 처음에 있어서는 조선 도래의 『唐本韓本』을 많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문예분야에 대해 말한다면 조선에서 주석된 『剪燈新話句解』⁴⁾를 읽고 처음으로 怪談小說을 만들고, 또 韓本の 棠陰秘事를 잘 읽고서 그 『諺解』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본의 裁判소설의 기원이 된 것이고 또 일본의 법의학의 연원이 된 것이다. 지금 羅山의 舊藏本은 일본의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나 이것을 보면 조선 도래의 도서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나는 林羅山 만큼 다량의 韓本을 읽은 학자는 江戸시대 300년을 통하여 달리 없다고 상상하고 있다.

또한 羅山은 朱子學의 理氣철학을 생각함에 있어 李退溪의 『天命圖說』을 어지간히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天命圖說』에 발문을 붙여서 출판하였다. 그 발문 가운데서 李退溪를 賞贊하여 「何地인들 才를 生하지 않을 것인가」⁵⁾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의 시에 다음과 같은 詩句가 있다.

退溪李氏拔群殊 貴國儒名世僉呼⁶⁾

-
- 4) 내각문고에 林羅山이 21세 때 읽은 『剪燈新話句解』가 현존하고 있다. 同書의 註釋者는 오랫동안 알지 못하였으나 실은 조선의 李崐 및 尹春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羅山年譜의 寬永末年의 條에, 羅山이 將軍 家光의 병을 위로하기 위하여 『仙鬼狐談』 3권, 『怪談』 2권을 썼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전등신화』의 번역일 것이다.
- 5) 『羅山文集』 권53, 천명도설跋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右天命圖說者, 朝鮮鄭秩齋, 李退溪之所作也. 其論性理氣質, 皆雖爲中國儒先之餘言, 然不戾於正, 而有可觀者. 余家藏此本久矣. 一日昧於惺齋(=藤原惺窩). 惺齋曰 四端出於理, 七情出於氣, 此說是也. 比諸困知記所云, 則爲善於彼. 昔趙松雪見新羅沙門金生書蹟, 題其后曰, 何地不生才. 信哉. 今余亦於此圖說云爾乎. 頃者村上行信生, 就余生乞贖之. 於是與之. 元和辛酉立夏日.」

(退溪이씨가 발군하여 뛰어났다. 貴國의 儒名을 세상이 모두 호칭한다.)

또

勞如圃隱要須慰 理與退溪將共窮⁷⁾

(勞는 圃隱과 같이 모름지기 위로함을 요하고, 理는 退溪와 더불어 함께 궁구하련다.)

라고 있다. 그의 理氣철학은 그것과 달라 오히려 『困知記』나 王陽明에 기본하는 氣의 철학이며, 그 점이 藤原惺窩가 李退溪의 理의 철학에 찬성한 것과 다른 점이 있으나, 그의 철학설을 깊게 함에 있어 李退溪의 설을 참고로 한 사실은 틀림없다.

또한 羅山은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항상 문화인의 중심적인 인물로 되어 그 절충에 당하였다. 즉 통신사의 왕래는 慶長 12년으로부터 文化 8년까지 전후 12회에 걸치고 있는데 그 가장 화려한 제6회까지 접대의 중심으로 되어 시문의 贈答을 행하고 유학이나 역사상의 깊이 파고든 문답을 해서 조선의 통신사를 경탄시켜, 趙龍州 등은 羅山の 형제부자를 宋의 三蘇에 비겼을 정도였다. 일본의 지식문화는 羅山の 출현에 의하여 급속히 상승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요컨대 江戸의 유교문화는 藤原惺窩·林羅山の 두 사람에 의해 그 기초가 구축되었던 것인데, 그 어느 쪽도 조선의 유교문화와는 지금까지 생각되어 온 것 이상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6) 본문의 句의 다음에 「與際風聲應互答 行盾江介琵琶湖」라고 있다. 『羅山詩集』 권48, 寄李石湖 참조.

7) 「朴進士所寄酬和之中, 有詩戰之語, 因戲復續其關聲云」. 『羅山詩集』 권48 참조. 또한 圃隱은 일본에 내방한 고려말의 鄭圃隱을 말한다.

3. 도학의 흥기와 李退溪

山崎闇齋와 그 학파

다음에 山崎闇齋이 일어나 羅山의 학풍과 다른 朱子學을 제창하였다. 그도 처음에 선승이었는데 土佐의 名家老 野中兼山의 유도에 의해 환속하고 朱子學자로서 서게 되었다. 그는 33세 때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감분흥기하고 또 李退溪의 『朱子書節要』를 숙독하여 막부를 배경으로 하는 林家와는 다른 道學을 제창하게 되었다. 그는 林家의 박학주의를 俗學이라 하여 배척하고 林家가 明朝의 『四書大全』 『五經大全』 등을 존송하여 明이나 朝鮮의 관학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오로지 朱子의 『經注書』나 『文集語類』의 정수에 대하여 깊이 朱子 그 사람의 정신사상을 탐구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학문이나 사상이 곧 바로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정신(魂)의 혁명에 가장 情熟을 쏟는 산 철학을 제창하였다. 요컨대 그는 元·明 이래 朱子사상의 진의가 잃어져 있다고 하여 朱子의 眞精神, 朱子가 가르침을 세운 根本義로 돌아가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朱子의 학문이나 사상 그것을 깊이 추구한 학자·사상가로서 그는 일본의 제일인자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철저한 사상가는 그 수가 적었다고까지 생각된다.

그런데 朱子學자로서의 그의 학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李退溪으로부터 얻은 바가 상당히 많다. 그는 惺窩나 羅山이 보지 못하였던 『李退溪文集』 『自省錄』 등을 읽고 이것을 흡수하여 그 저술 가운데 수십조나 李退溪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闇齋에 이르러 李退溪의 인물학문의 진의가 비로소 인식되고 표창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闇齋의 문류가 번창하게 됨에 따라 그 가운데서 다수의 李退溪 존송자를 내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闇齋의 高弟 佐藤直方·淺見綱齋는 가장 존송하였다. 따라서 그 문류인 村士玉水·古賀精里·稻葉迂齋·默齋·楠本端山·碩水 등도 같이 존경하였다.

大塚退野와 熊本實學派

또 따로이 熊本에 大塚退野의 학파가 일어났다. 이 退野는 처음에 中江藤樹의 학을 신봉하고 있었으나 李退溪의 『自省錄』, 『朱子書節要』를 읽고 신처럼 부모처럼 존숭하여 초연히 자득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 학파의 학풍은 자연 闇齋학파의 그것과는 달랐으나 양쪽이 다 李退溪를 자못 존숭한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한데 그 흐름이 熊本의 時習館에 전하여져 幕末에는 横井小楠·元田永學(東野)등의 준걸을 낳아 明治시대의 교육방침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주의를 요한다.

李退溪 저서의 일본 刻本과 유행의 이유

李退溪의 저술도 대부분 江戸시대에 출판되었다. 즉 『心經附註』, 『延平答問』 등의 李退溪의 발문을 붙인 책도 일찍이 출판되었고 더구나, 『天命圖說』, 『自省錄』, 『朱子行狀註』, 『朱子書節要』, 『易學啓蒙傳疑』, 『聖學十圖並戊辰封事』, 『西銘考證講義』, 『七先生遺像贊』 외에 村士玉水가 編한 『李退溪書抄』 10책도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朱子行狀註』 등은 조선에서는 거의 亡佚하였는데, 도리어 江戸시대에는 여러 차례나 翻刻되어 성하게 私塾에서 강습되었다. 또 『自省錄』의 原刻本 등도 한국에서는 망일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일본에서는 일찍이 1650년경부터 원각본 그대로, 版心에 한글이 들어 있는 그대로, 복각되고 그 뒤 여기에 훈점을 붙여 간행되어 널리 학자에게 읽혀졌다. 일본의 학자는 『李退溪文集』까지는 읽을 수 없어 『自省錄』을 읽고서 李退溪의 사상과 인격을 알고, 혹은 이것에 의하여 감분흥기하였던 것이다.

또한 『朱子行狀註』를 사숙에서 많이 강습한 것은 朱子の 煩鎖한 학설이나 이론을 아는 것보다도 朱子の 전인격·인간상에 접하는 쪽이 교육적으로는 한층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견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淺見綱齋가 明言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李退溪가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였을 때의 취지도 이것과 같은 것이 있었다. 『朱子書節要』는 朱子の 편

지의 주요한 것을 모은 것인데, 이것을 편집할 때 그 편지의 중요한 일부만을 절단하여 편집한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 가지고는 朱子の 사상을 이치로만 볼 뿐으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문인에 대한 時候의 인사까지도 잘라 버리지 말고 그대로 全載하는 것에 의해 朱子の 전사상과 전인격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감분흥기하게 하는 것이 있다. 李退溪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을 편집한 것이었음은 이 책의 발문 대신으로 실린 李仲久에 답하는 편지에 명기되어 있는 바이다.

朱子の 학문을 추상적으로 단순히 이론학설로 보지 않고, 朱子の 전영혼·전인격이 流露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아 자기의 수양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학풍은 山崎闇齋 등이 李退溪의 학풍에 공명한 중요한 점이다. 덧붙여 말하면, 稻葉默齋학파에서는 매일 아침 이 『朱子書節要』의 輪讀會를 열고 특히 매월 1일과 15일에는 의복을 정제하여 李退溪의 서문과 李仲久에 답하는 편지를 읽어, 이 『朱子書節要』를 읽는 規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지금 그 규약이 남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형성의 문제로서 얼마나 진실하게 파고 들었는가를 엿볼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웃기를 여미게 하는 것이 있다.

4. 朱子學의 부정적 발전과 日本儒學의 약간의 특색

朱子學에 대한 비판

그런데 山崎闇齋에 의해 朱子學이 궁구되어 이를 데까지 이르고 보니 일본에서는 朱子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아래에 李退溪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약술해 둔다. 즉, 具原益軒은 명의 羅整庵의 『困知記』의 설에 근거하여 朱子の 理를 주로 하는 理氣철학을 개변하여 氣를 주로 하는 철학을 창도하여 그 공리의 범위도 확장하여 박물학·위생학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그런데 그 『困知記』는 실은 임란 때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그 책은 조선 성주에서 번각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⁸⁾. 이 밖에 또 朱子學을 완전히 뒤엎은 사람으로 伊藤仁齋·山展素行이 있다. 仁齋는 朱子の 理의 철학을 배척하여 氣의 철학을 세우고 朱子の 『大學·中庸章句』를 비판하여 『論語古義』, 『孟子古義』, 『語孟字義』 등을 저술하고 공자·맹자의 참다운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복고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朱子와 같이 욕망을 금지하면 인간 본래의 훌륭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하는 것은 孔孟의 참다운 정신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욕망을 포함한 인간의 자연의 性情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이 학문의 道이며 孔孟의 사상이라고 창도하였다. 이같은 인간관·교육관의 변경은 불교·朱子學 이래의 인간관·교육관의 변경이며, 이것이 또한 중국의 戴震의 說보다도 100년이나 전에 주장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학이 단기간 사이에 얼마나 長足の 진보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荻生徂徠에 이르면 이제까지의 유교적인 학문관을 완전히 고쳐버리고 말았다. 학문을 성현군자가 되는 道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학문관이었지만, 徂徠에 이르러서는 학문과 도덕수양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되어, 학문이란 정치의 기술 혹은 문예의 기술 등 국가사회의 복지에 쓸모있는 것이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관은 유학의 가치체계를 근본으로부터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는 하나, 이 학문관의 성립에 의해 일본의 지식문화의 향상에 도움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로부터 역사학·정치학·문학·의학 등의 제학문도 도덕수양의 학문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서양의 근대적인 학문관에 통하는 길을 열었다. 또한 이러한 학문관은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래의 뒤에, 徂徠의 학문에는 폐해를 수반하는 것이 있었으므로 그 후 江戶의 유학계에는 각종각양의 절충학파가 일어나 幕末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사이 막부는 이른바 寬政異學의 禁을 실시하여

8) 宇喜多秀家が 가져왔다도 推定되는 養安院本이 현재 熊本縣 人吉高校에 所藏되어 있다. 朝鮮 星州刊本이고 日本의 萬治·寬文·寶永刊本の 原本이다.

朱子學을 가지고 사상의 통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그 때의 주역인 寬政의 三博士, 岡田寒泉, 古賀精里, 尾藤二洲는 모두 闇齋學派의 사람이며 특히 李退溪를 존중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李退溪書抄』 10책은 岡田寒泉·古賀精里의 두 사람에게 의해 출판되었다⁹⁾. 그러나 이 異學의 禁은 반드시 성공하지도 못하였으며 일본에는 각종의 학파가 더욱더 성하게 일어나 가치관도 다양하게 되고 나아가 國學이나 石門心學 등도 일어나 더욱더 다채롭게 되었다. 유교를 기초로 한 무사도가 형성된 것, 나아가 石門心學派의 서민교육이 발흥한 것, 또 유학계에 절충학파가 일어나 다채로움의 극을 이루었던 것 등은 중국이나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幕藩체제를 타도하는 추진력

그런데 幕末, 서양의 압력이 가해져 막부의 세력이 쇠하여짐에 따라 드디어 明治維新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明治維新의 사상적인 원동력이 된 것은 특히 山崎闇齋학파나 水戶學派였다. 즉 江戸시대의 유교는 幕藩체제의 안정화에 다대한 기여를 한 것이나, 동시에 막번체제를 타도하는 추진력으로도 되었던 것이다. 明治維新은 세계의 학자가 정치상의 기적으로서 놀란 것인데, 그 원인은 바로 유학을 주로 하는 교육이 보급·침투하여 선각자의 사상운동이 성공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5. 李退溪의 어떤 점에 共鳴하였는가, 또 그 일본적 전개

학문·교육의 목적과 방법

그런데 江戸시대의 儒者가 李退溪의 사상의 어떤 점에 가장 공명하였는가, 앞에 그 한 점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아래에 좀 더 보충하여 서술해 보자. 山崎闇齋에 대하여 보면 그는 우선 『自省錄』을 읽어 朱子の

9) 『李退溪書抄』 10권은 村土玉水の 編으로 岡田寒泉이 刊刻한 것이다. 여기에 古賀精里의 長文의 序가 붙여져 있다. 文化 8년刊.

『白鹿洞學規』를 논한 글을 읽고는 깊이 감동하였던 것이다. 그는 『白鹿洞學規集註』라는 책을 저술하여 그 서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자에 李退溪의 自省錄을 보건대 백록동학규에 대해 논한 것이 상세하다. 이 논을 반복숙독하여 이 학규의 진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학·대학의 책이 읽혀지고 있으나 그 참다운 정신을 밝힌 자는 없다. 그것은 시대가 멀리 떨어지고 토지가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인가. 그러나 李退溪와 같은 이는 조선 수 백년의 뒤에 태어나 고서도 오히려 朱子の 高弟에 다름 바가 없으므로 나도 감분흥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¹⁰⁾.

요컨대 闇齋는 이것에 의하여 학문·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자득하였다. 즉 학문은 오류의 도를 닦고 이것을 실천하여 大賢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것이 공자·朱子の 참다운 정신이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는 아무튼 철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 또 학문교육의 방법은 특히 朱子の 敬을 주로 하여야만 한다. 이제까지는 아무튼 朱子學이라고 하면 널리 책을 읽거나 혹은 개념적인 지식을 구한다든가 관념적인 철학적 사색을 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입신출세를 위해 학문을 한다든가 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으나 이같은 학문교육의 자세에 대하여 엄격하게 반성하여, 朱子學을 일상 卑近한 데로서 착수하여 목적을 비뚤어지게 하지 않고 참으로 자기의 몸에 불도록 마음 속 깊이로부터 다시 바르게 하는 바른 학문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학문관·교육관은 뻔히 다 아는 것 같으나 실은 천하의 治亂盛衰에 관련되는 중대사로서 자각을 새로이 하여 철저하게 考究한 것임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李退溪는 이 목표를 어김없이 발휘한 학자라 하여 이 점을 존경하였

10) 『白鹿洞學規集註』序에는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晦庵朱夫子, 挺命世之才, 承河洛之統, …我國小大之書, 家傳人誦, 而能明之者, 蓋未聞其人. 是世遠地去之由乎. 雖然若退溪, 生於朝鮮數百載之後, 而無異於洞遊面命, 則我亦可感發興起云.

던 것이다. 이것은 左藤直方이 문인들을 위해 冬至文을 지은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짐이 땅 위에 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그 때 나온다면 그 짐을 짊어져서 오래 땅에 내버려 두는 일은 없다. 지금 성인의 학문을 하는 사람은 짐을 지는 사람이다. 俗學輩들은 길을 할 일 없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의 類이다. 어떻게 도를 일삼는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조선의 李退溪의 뒤로는 이 도를 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듣지 못하고 있다.11)……

곧 李退溪가 도를 일삼고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孔孟의 참다운 정신을 어김없이 발휘하였다고 하는 점에 깊이 감동하였던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이 冬至文을 좌동학파에서는 明治·大正 年間까지도 冬至日에 모여서 강습하였다는 것이다.

敬

다음에 학문의 방법으로서 朱子는 居敬窮理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이 두개의 기둥 가운데 敬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李退溪의 사상에 闇齋는 공명하고 있다. 闇齋의 말에,

학문의 도는 치지와 역행에 있다. 存養은 그 두 가지를 꿰뚫는 것이다. 예로부터 智者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천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存養의 도를 알지 못하므로 그 아는 바의 범위, 실천하는 바의 기상은

11) 冬至文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道之廢而不行，猶擔物之捨置地上也。若有其人出於其時，則任之而使不永墜地矣。今務聖學者乃擔夫也。俗學之徒則路中之游手耳。何足望道之任手。朝鮮李退溪之後，欲負荷此道者，吾未聞其人焉。中庸序所謂吾道之所奇，不越乎言語文學之間，正謂此也。我邦自古至于今，欲任此道者幾人也耶。二三子有志於聖學矣乎，無乎。若果有其志，則豎立脊梁骨，可以願學孔孟矣，曾子不云乎。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仁以爲己任，不亦重乎。死而後已，不亦遠乎。豈悠悠徘徊，終歲月，與夫游手浮浪之徒，爲伯仲哉。

마침내 성인의 무리와 다르게 되어 있다¹²⁾.

라는 말이 있으며 여기에 또 「存養의 要는 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敬이라고 함은 마음을 삼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착수처는 외형을 整齊嚴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긴장되고 통일되어, 잘 때는 잘 때 나뉘므로,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을 때 나뉘므로 정신이 집중된다. 朱子는 「敬은 畏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때이다. 그러한 때에는 어떠한 대악인이라도 인간본래의 훌륭한 본심으로 되돌아 설 것이다. 그 본심을 평상시에 불러 일으키는 것이 즉 敬의 공부라고 천견경재는 설명하고 있다.

이 敬에 대하여 李退溪는 卑近하기는 하나 高遠한 說을 도처에서 말하고 있다. 闇齋는 李退溪의 敬의 설을 매개로 하여 朱子의 「敬齋箴」이라는 문장을 表彰하고 여기에 註를 가하여 출판하였는데 실은 李退溪도 「敬齋箴」과 앞에서 말한 「白鹿洞學規」를 서재에 걸어두고 향시 완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闇齋의 학과는 독서에 의한 공리보다도 오히려 敬에 의한 수양을 중히 여겨 敬의 수양으로부터가 아니고서는 성현의 지위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학풍을 연 것인데, 그 학풍을 연 것은 그 당초 李退溪에 감격한 데에 그 원인이 구하여진다.

道學

闇齋의 학문은 朱子의 학설을 교조주의적으로, 단순히 지식으로서 방관자적으로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형성의 학으로서, 자기의 산 마음의 학문으로서 주체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體認體察을 가장 중히 여기는 학문이다. 또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실천

12) 夫學之道，在致知力行之二，而存養則貫其二者也。漢唐之間，非無知者也，非無行者也。但未曾聞存養之道，則其所知之分域，所行之氣象，終非聖人之徒矣(近思錄序).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의 속깊이로부터 다시 바르게 하여 순수무잡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이른바 存養을 가장 중히 여기는 수양의 학문이다.

李退溪의 『自省錄』 속에 「體察과 存養은 吾家の 宗旨」, 「天理와 人事는 二致가 아니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체찰과 체인을 중히 여기고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도 천지우주의 生生不已하는, 이른바 우주정신, 천지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자득하여 어떠한 악의 유혹에도 미동조차도 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을 학문과 교육의 최후의 목표로 삼는, 이른바 도학을 창도한 점이 李退溪·闇齋의 가장 공통된 점이였다.

본래 일본에서는 서양류의 학술관이 들어온 이래로 이같은 도학적인 학문관·교육관은 차차 그 존재가 희미해지고 따라서 道學派에 대한 연구도 소홀해져 그 가치도 낮게 평가되도록 되어 왔으나 서양문명의 막다른 벽이 말해지고 있는 현대, 문명병이라고 불리우는 도덕의 퇴폐가 세계의 문제로 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 크게 다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앞에서 말한 朱子の 『白鹿洞學規』는 근세 아시아의 교육강령과 같은 존재이고, 明清·朝鮮·江戸시대에 널리 읽혀졌던 것이고, 일본에서는 70여 종류의 판본이 출판되었다. 또한 그 평가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표창한 사람은 山崎闇齋이고, 闇齋는 다름아닌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음으로써 그 진가를 자득하여 일본에 道學派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점만을 생각해 보아도 일본의 교육사에 끼친 李退溪의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山崎闇齋는 李退溪의 학문을 매개로 하여 그의 철학설을 심화하고, 인간의 정신(魂)의 혁명에 무기력한 그 때까지의 학풍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학풍을 열었던 것인데, 그 위에 朱子の 大義名分說을 깊이 추구하였다. 게다가 일본인으로서의 자주적인 정신에 서서 이것을 말하였다. 「공자·맹자가 일본에 쳐들어 왔다면 이를 포로로 하는 것이 일본의 공자·맹자의 도이며 일본의 春秋의 도이다。」라고 갈파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는 그 정신에 서서 일

본의 역사를 의의깊게 회상하고 일본이, 가령 정권이 막부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도, 萬世一系의 황실이 항상 일본의 통치의 중심에서 있었다는 것은 만국에 比類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또한 존왕론을 창도하여 순수 무잡한 충성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 門流로부터 다수의 尊王論者나 勤王實踐家가 배출한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水戸光國이 『大日本史』를 만들려고 하였을 때 闇齋學派의 문인이 다수 여기에 參劃하였다. 요컨대 闇齋는 朱子學者로서 특별히 새로운 학설을 창도한 것은 아니나, 견식이 높은 사람으로서 학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어느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였던 사람이다. 闇齋는 朱子の 정신적 노예라고 일찍이 비평되었던 일도 있으나¹³⁾ 실은 철저하게 朱子の 사상·철학을 탐구하여 그 위에 서서 존왕론을 창도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 까닭에 문류가 차차 발전하여 明治維新의 사상적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근본이 되는 철학설은 李退溪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6. 橫井小楠·元田永孚와 明治의 교육지침

橫井小楠

다음에, 明治維新 즈음으로부터 明治시대에 걸쳐 활약한 사람으로는 橫井小楠, 元田永孚가 있다. 이 두 사람은 大塚退野의 學流를 받은 사람이었다. 大塚退野는, 학문이란 인간의 사는 방법을 자각하여 手之舞之·足之蹈之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일대환회를 얻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하여, 거기에서 출발한 실제의 세상에 쓸모있는 실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사람은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朱子學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서, 만일 李退溪의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朱子の 진의도 알지 못하고 속학으로 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다.

13) 井上哲次郎, 『日本朱子學派의 哲學』.

橫井小楠, 元田永孚는 退野의 영향을 받아 李退溪를 적지 않아 존경하였다. 그리고 小楠은 「堯舜의 도를 밝히고 서양 기계의 術을 다하여 어찌 強兵에 그칠 것인가. 大義를 사해에 펼 따름이다.」라고 말한 사람이다. 佐久問象山이 「동양의 도덕, 서양의 예술(=기술)」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과 같은 생각으로 도덕은 동양의 가르침에 의하고 과학기술은 서양에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幕末의 진보적인 지식인, 儒者의 최후에 도달한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橫井小楠은 여기에 더욱 한 걸음 나아가 일본은 부국강병을 목표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에 仁義의 大道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강국이 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強이 있으면 반드시 弱이 있다. 이 도를 밝게 하여 세계의 뒷바라지役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一發의 대포에 일만이나 이만까지 전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못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거기서 우리 일본은 인도와 같은 식민지가 되느냐 세계 제일의 인의의 나라가 되느냐, 완전히 이 둘 중의 하나, 그 밖에는 다른 것이 더 없다.(橫井氏 說話)

일본의 진보를 오늘에 명시하는 것 같은 말을 토로하고 있다.

元田永孚

이 橫井小楠을 스승으로 하고 벗으로 하여 가장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元田永孚이다. 元田은 明治천황 20세 때 侍講이 되어 천황의 절대적으로 큰 신뢰를 얻었다. 明治 초년은 서양문명을 수입하는 데 급한 나머지 동양 고래의 도덕이나 孔孟의 가르침을 캐개 묵은것, 迂遠한 것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 동시에 한 쪽에서는 편협한 국수주의·복고주의를 부르짖어 마지 않았다. 그 양극단 사이에 서서 이것을 조절하여 中正한 지침을 보인 것이 明治천황이고, 천황을 보좌한 것이 元田永孚였다.

文部省이 당초 서양의 학제를 모방하여 그 교육방침도 공리주의·실용주의·입신출세주의였던 것인데, 천황은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는 걱정된다고 생각하여 明治 12년에 元田에 명하여 「教學大旨」를 기록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教學의 要는 仁義忠孝를 밝히고 그 위에 知識才藝를 궁구하는 것이 祖宗의 訓典」이라 하고 또 「道德의 學은 공자를 주로 하여 사람마다 성실품행을 존중하고 그런 위에 각 科의 學을 힘쓴다면 道德才藝本末이 全備하여 우리나라 독립의 정신에 있어 宇內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教學大旨」는 明治의 교육방침을 크게 전환시키는 실마리가 된 것으로 뒤에 明治 23년에 教育勅語로 발포되어 그 정신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칙어의 기초에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 元田永孚이다. 이 元田永孚가 「程朱의 學은 조선의 李退溪에게 전하여, 退野선생이 退溪所撰의 『朱子書節要』를 읽고서 초연히 얻은 바가 있었다. 내가 이제 退野의 學을 전하여 이것을 今上皇帝에게 받들어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교적 교육

일본이 明治 이래, 경이적인 약진을 이룩하여 잠깐 사이에 세계의 일등국이 되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일찍이 영국의 학회에서 토의되었던 일이 있다. 그 결론의 제1은 일본은 교육이 보급되어 있고 또한 教育勅語로서 국민의 사상이 통일되어 있는 것, 제2로는 일본이 의회제도를 채용하여 民意를 반영시킨 일에 원인을 구하고 있다. 제2의 것은 우선 놔두고 제1의 점에 대하여 말하면, 江戸시대에는 교육이 보급되고 藩校의 수도 280, 글방 私塾의 수는 2만 5천 내지 4만이나 있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明治시대로 되어 그것이 근거가 되어 중학교·소학교로

되고, 취학률도 세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교육내용은 유교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였던 것이다.

江戶시대의 유교적 교육이 明治 초년에 일변하여 고원한 이상이 없어진 실용주의적인, 입신출세적인 기술교육을 주로 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놓은 것이 「教學大旨」요 教育勅語였다. 이 教育勅語의 내용은 유교윤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부분이 일본 고래의 사상이고 어느 부분이 유교윤리인가를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다. 교육칙어는 전후에 그 실효를 확인당해 현재는 일본의 교육계에서 완전히 돌보아지지 않게 된 것이나, 일찍이 세계 사람들에게 도덕운동의 성공한 사례가 되어 세계의 賞讚을 모은 것이다. 다만 그것을 학교에 시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일본이 이 세계의 제국주의 경쟁에 휩싸여 차차 군국주의화해 버렸기 때문에 악용되어 그 내용까지 내버려져지고 말았으나 본래 교육칙어는 일상의 도덕을 보편성을 가지고 說한 것이었으며 이것을 中外에 실행하여 어그러짐이 없는 마음 속의 말이다.

明治천황이나 元田永孚의 마음 속 깊이에는 橫井小楠이 말한, 일본을 세계 제일의 도의의 나라로 한다는 생각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거슬러 올라가면 李退溪의 마음이기도 하며 朱子나 孔子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바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明治시대는 표면적으로 보면 서양문화가 지도정신이 되어 유교는 쇠퇴하여 버렸다고 생각되지만 실은 교육정신의 골격을 이룬 것이 유교윤리이고, 더구나 당시의 문화인·지식인은 江戶시대의 한학이 교양을 깊이 몸에 붙인 사람들이었으며, 그 교양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교는 표면적으로는 그림자도 형체도 없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은 일본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골격이 되어 신문화 창조의 토대로 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아마도 300 이상이나 되었던 일본의 공자묘가 모두 모습이 없어져 버려 유교는 그림자도 형체도 없어진

것처럼 보이거나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일본이 한자와 가나가 섞인 글을 사용하여 외래의 한자를 완전히 일본화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자와 가나가 섞인 글에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은 한자로 쓰는 것이 보통이고, 한자는 일본文의 골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인은 한자를 외래의 문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國字로 의식하고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교의 사상도 완전히 일본화된 것이고, 일본이 明治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도 이 유교가 근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유교의 禮가 없어져 버리고 다만 정신만이 살려졌다고 하는 것은 日本儒學의 가장 커다란 특색이라고 생각한다.

7. 李退溪의 평가

山崎派와 大塚派에서 특히 尊信

다음에 일본의 학자가 李退溪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그 말을 모아 소개하여 보자. 林羅山은 「어느 땅에선들 才를 生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하여 李退溪의 학식에 감탄하였는데 山崎闇齋는 그 학식·인격을 존중하여 「朱子の 高弟에 다를 것이 없다.」 「조선의 一人.」이라고 말하였고, 그 문인 左藤直方은 「조선의 李退溪는 東夷의 産으로서 중국의 도를 기 빼하여 孔孟을 존송하고 程朱를 宗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학식의 도달한 비는 크게 元·明諸儒의 類가 아니다.」¹⁴⁾ 또 「조선의 李退溪는 程門의 上座에 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또 左藤直方학파의 稻葉默齋는 「朱子 이래의 一人.」 「小成의 朱子.」 「朱子の 道統.」이라 하고 楠本端山은 「淸의 陸稼書는 張楊園에 미치지 못하고 楊園은 退溪에 미치지 못한다. 淸의 薛(敬軒)·胡(敬齊)도 또한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구

14) 竊謂堯舜以來, 道學相傳而至于孔孟. 孔孟之後, 秦漢隋唐, 其學不傳, 至于宋, 周程張朱接其統, 而道學復明於世. 朱門黃勉齋蔡九峯, 實得其傳. 其餘蓋無聞焉. 元明之間, 以儒名者, 不可校舉. 而至于其窺聖學門牆, 則方孝孺, 薛文淸, 才見此二人而已. 朝鮮李退溪東夷之産, 而悅中國之道, 尊孔孟宗程朱. 而其學識之所造, 大非元明諸儒之儔矣. (討論筆記, 『佐藤直方全集』 11면 참조.)

체적으로 明清의 朱子學자를 들어 높이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橫井小楠은 「古今絶無의 眞儒」로까지 평가하였다. 이렇게 보아 올 때 일본의 제학과 가운데 특히 山崎闇齋와 大塚退野派의 이 二派로부터 특히 존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파에서는 朱子の 참으로 바른 학문의 혈맥 즉 도통은, 朱子로부터 李退溪에 전하여 일본의 道學派에 전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생각컨대 朱子學派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대별하여 두 개의 유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식을 주로 하여 博學을 힘쓰는 일파이고, 하나는 體認自得을 중히 여겨 수양을 주로 하는 일파이다. 李退溪는 朱子 이후의 학계가 자칫 形骸化하여 형식주의나 박학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였던 데 대하여 체인지득과 수양을 주로 하는 학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李退溪의 아시아 유학사 상에 접하는 지위도 거기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朱子學파도 林家를 비롯하여 다른 朱子學파는 지식주의적이었지만 山崎派나 大塚派는 體認自得과 수양을 중히 여기는 李退溪의 학문에 공명하여 일본의 사상사 가운데 커다란 족적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 본토의 학계에서는, 李退溪는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四庫全書』 중에 著錄된 책은 겨우 『徐花潭文集』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중화민국이 되어 李退溪의 『聖學十圖』를 표창한 자가 있으나 그 사람은 일류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본래의 우주정신

다만 일본에만 이와 같이 共鳴者를 낸 것은 학문적으로도 흥미있는 문제이고, 더욱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감상을 말하면, 朱子の 사상은 우주의 理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이다. 현상의 배후에 있는 기품 높은 맑디 맑은 신과 같은 우주적인 理를 존중하여, 인간도 본래적으로는 훌륭한 우주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宋代의 도자기·회화 등과 明時代의 그것과를 비교하여 보면 宋代의 것은 맑디 맑은 엄격한 정신이 느껴지는 데 대하여, 明時代의 것은 세속적인, 그러나 인간미 풍부한 것이 많다. 이것은 宋시대에 朱子の 理의 철학이 성행했고

明시대에는 氣의 철학이 성행했던 것과 照應한다고 생각되는데, 李退溪는 인간의 맑디 맑은 순결성이라는 것을 각별히 사랑하였던 것이리라. 본래 한국사람은, 옷은 백의를 사랑하고 또 도자기도 宋朝風의 도자기를 애호하여 왔었는데, 李退溪의 정신도 바로 한국의 이와 같은 風尙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일본도 그같은 禪的이라 일컬어지는 맑디 맑은 예술을 사랑하는 일면이 있다. 일본의 유학자가 李退溪에 공명한 그 배경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흥미 깊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나의 감상 정도를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 부가하여 말하면, 조선에서는 李退溪가 제창한 四端理發, 七情氣發이라는 학설이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討究되어 드디어는 政爭과 결부되어 피투성이의 붕당의 싸움으로까지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추구는 거의 도외시되어 山崎闇齋이 四端理發, 七情氣發의 說은 李退溪의 설이 가장 좋다고 단정한 이래로 이같은 이론에 대해 추구하는 것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朱子의 철학의 틀 밖으로 나온 伊藤仁齋의 四端擴充發展說, 性情의 자연적 발달을 지향하는 윤리설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론적 추구나 그 구성에 대하여는 능한 것 같으나 일본인은 오히려 직관적이어서 이론의 추구하고 구성에는 능하지 않았던 것 같다.

8. 儒學은 어떻게 일본사회에 기능하였는가

儒者라는 전문가

최후로 일본의 江戸시대에 어떻게 이와 같이 유교가 사회에 기능하였는가 라는 점에 대하여 私見의 하나를 첨부해 두고 싶다. 江戸시대는 大名·武士·庶民의 계층으로 되는 신분사회이어서 儒者는 武士와 서민 사이의 중간층에 속하고 있었다. 江戸의 유명한 儒者의 출신을 조사하여 보면 대개 浪人武士나 의사나 부유한 상가, 농가의 출신이었다. 따라서 儒者는 武士의 교사로서 혹은 서민의 지도자로서 그 지혜를 쓸 수 있었다. 혹은 서민의 원기나 발상법을 그 사상 속에 흡수하여 사상을 구성할 수가

있었다. 그 점이 중국이나 조선의 사회와는 매우 달라 있었다.

조선에서는 양반·중인·상민·천민의 4계층으로 나뉘어, 유교는 귀족 계급인 양반의 독점물이었다. 어학·천문학·수학·의학·농학 등의 실학은 이것을 중인계층이나 양반의 첩복의 자식들이 담당하였으므로 그 학문이 도리어 발전하였지만, 유학은 귀족출신의 관료들의 신분적인 윤리로서 닦여지고 혹은 귀족의 교양으로서 학습될 뿐이었으므로 발전할 여지가 적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도 유학은 관료의 신분윤리 혹은 교양으로서 닦여지고, 그 관료가 지위를 얻어 지방에 부임하면 실무는 신분이 낮은 서기에 맡겨버렸으므로 산 학문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었다고 생각한다. 조선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상상된다.

즉 일본은 봉건제도,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儒者라는 전문직이 생기고 또한 武士과 서민의 교사로서 실제의 사회에 쓸모 있는 사상, 학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하여 幕末維新의 때가 되어서는 儒者는 재빨리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武士는 武士대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서양식의 무기나 투쟁법을 연구하고, 서민은 서민대로 서양식의 상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관료가 다만 중국의 고전적 교양을 알 뿐으로 군사나 상업에 대하여 아무런 전문적 지식도 없고, 문화에 대하여서도 중국이 가장 뛰어나 있다고 하는 中華自大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있었다.

9. 맺음말

일본의 지혜

생각컨대 일본은 세계의 孤島에 있어 겸허하게 외국문명을 받아들이고 또한 오히려 외국문명을 미화하여, 이른바 蒸溜化하여 수용하였다. 예를 들면 유교의 경우에도, 유교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토속·풍습 등은 받아들이는 일이 없이 그 정신의 정수만을 수용하였다. 호기심에 불타 탐욕할 정도로 외국의 문명을 수용하였으나 동시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水戶光國은 일찍이 자서전을 써서 그 가운데 「神儒를 존송하여 신유를 駁하고 老佛을 존송하여 노불을 물리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같은 정신은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저 어떠한 가르침이라도 완전무결한 것은 있을 수 없다. 神道나 유교 또는 불교라 하더라도 각각 장점도 있으면 결점도 있다. 그 장점을 골라 취해서 사회에 살려 온 것이 일본의 지혜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조선은 朱子學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고 하나, 朱子學 그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쓴 사람이나 사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사상의 역사와 비교하여 생각할 때 특히 명백하게 된다. 그 사람이 일어나면 이 도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도도 쇠한다. 요컨대 그 도를 짚어지는 사람의 여하에 의하여 그 도의 성쇠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바로 평가하여야 할 유교

지금 나는 일본의 나라를 일으킨 커다란 힘이 되고 일본의 사상의 등뼈가 되어 온 것은 유교라고 하는 것을, 역사 위에서 생각해 본 것인데 현재의 일본은 이른바 등뼈가 끊어진 나라로 되어 있다. 한갓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에 인정받도록 되어 있지만 일찍이 橫井小楠이 기대한 세계제일의 道義의 나라와는 인연이 먼, 그림자가 희미한 존재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이 참으로 도의의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는 뭐라 해도 유교라는 것을 근본으로부터 바로 평가하여 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한국인으로부터 신처럼 존경되고 동시에 일본인으로부터도 올바른 유학을 일으킨 祖로서 존경되고, 특히 일본의 교육에 대한 자세가 비뚤어져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山崎闇齋學派나 元田永孚 등에 적지 많이 존경되었던 李退溪의 사상을 현대의 사회에서 바로 평가해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한일 양국의 이해와 우호를 깊이하는 위에서 생각해 보아도 중요한 한 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안병주 譯)